

# OECD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



정 해 영  
노동부 국제협력관실 행정사무관  
bruins93@hanmail.net

는 2.0%로써 멕시코(2.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이라 한다. 본 글에서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향후 고용전망, 청년고용, 여성고용, 임시고용, 장기 실업 등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사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은 2002년 OECD 고용전망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 1. 최근 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

최근 OECD는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Employment, Labour, Social Affairs Committee) 주관으로 매년 발간되는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의 금년도 판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용증가율은 2002년도에 1.8%로써 OECD 국가중 가장 높고, 2003년도에

### 가. GDP성장률

OECD 전체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01년 1%로 둔화되었으나, 2002년 한국, 북미, 오세아니아 등을 선두로 회복세로 돌아서고, 2003년에는 3%대를 회복하게 될 전망이다.

〈표1〉 OECD 주요지역의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

	'89-'99평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한 국	6.0	9.3	3.0	6.0	6.5
미 국	3.0	4.1	1.2	2.5	3.5
일 본	1.7	2.4	-0.4	-0.7	0.3
독 일	2.3	3.0	0.6	0.7	2.5
영 국	2.1	3.0	2.2	1.9	2.8
프랑스	1.7	3.6	2.0	1.4	3.0
EU	2.1	3.4	1.7	1.5	2.8
OECD	2.6	3.9	1.0	1.8	3.0

\* 전망치

본 글에서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향후 고용전망, 청년고용, 여성고용, 임시고용, 장기실업 등의 전반적인 노동시장 사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나. 고용

고용증가율은 경기둔화에 따라 2001년과 2002년에 낮아졌다가 2003년에 종래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고용감소로 인해 '90년대 초반이래 처음으로 2001년 유럽의 고용증가율이 미국 등 북미지역

을 추월했으나, 2003년에는 다시 역전될 전망이다. 일본은 2000년과 2001년에 이어 2003년까지도 고용규모가 계속 줄어들 것이며, 한국은 지난해에는 2000년(3.8%)에 비해 낮은 1.4%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2년(1.8%)과 2003년(2.0%)에는 계속하여 높아질 전망이다.

〈표2〉 OECD 주요지역의 고용증가율

(단위 : %)

	'89-'99평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한 국	1.5	3.8	1.4	1.8	2.0
미 국	1.3	1.3	-0.1	-0.4	1.4
일 본	0.5	-0.2	-0.5	-1.5	-0.4
독 일	0.7	1.6	0.2	-0.3	0.5
영 국	0.2	1.0	0.8	0.3	0.6
프랑스	0.5	2.5	1.5	0.4	0.8
EU	1.1	2.0	1.3	0.4	0.9
OECD	1.2	1.3	0.4	0.0	1.1

\* 전망치

#### 다. 실업

2001년 OECD 전체의 실업은 0.3%p(150만명) 증가한 6.4%(33백만명)를 기록하였으며, 2002년에는 6.9%(35백만명 이상)까지 증가하였다가, 2003년에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별로는 한국, 호주, 이태리, 그리스, 슬로바키아에서만

2002년 실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리스(10.3%), 슬로바키아(19.1%), 스페인(10.7%), 폴란드(19.6%)는 두 자리수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이다. 유럽의 경우 2001년 경제활동인구 증가세 둔화로 실업률이 0.4%p 낮아졌으나 2002년에는 다시 증가할 것이다. 미국은 2000년(4.0%), 2001년(4.8%)에 이어 2002년에는 5.6%까지 급증하고,

2001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통계비교가 가능한 2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2,447시간을 일했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2,000시간을 넘는 국가는 체코(2,000시간)와 슬로바키아(2,026시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2003년에는 과거 50년 기간 중 가장 높은 6%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2. 주제별 요지

### 가. 제1장, 청년 노동력 고용실태 및 고용촉진정책 (a better start for youths?)

OECD 회원국의 평균 청년인구 비율은 '60년대말에서 '70년대 중반을 고비로 하락하였다. 성인(25 - 64세) 실업률 대비 청년(20 - 24세) 실업률의 비율은 과반수 이상 국가에서 하락하였으며, '83 - '90년 평균에 비해 '93 - '00년 평균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 노르웨이, 벨기에, 룩셈부르크, 일본, 미국 등으로 나타

났다. 같은 기간 청년성인의 장기실업률도 그리스, 호주, 스웨덴,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서 감소하였다. 보고서는 효과적인 정책 사례로 학교 졸업생 취업에 대한 정부(공공)의 적극적인 관리, 청년실업급여 제도, 견습 또는 인턴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나. 제2장, 일하는 여성, 그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women at work: who are they and how are they faring?)

최근 여성의 취업증가로 성별 고용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나, 대다수 국가에서 여전히 성별 고용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성별 고용격차(남성과 여성의 취업률

〈표2〉 OECD 주요지역의 실업률

%(백만명)

	'89-'99평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한 국	3.1(0.6)	4.1(0.9)	3.7(0.8)	3.3(0.7)	3.0(0.7)
미 국	5.7(7.5)	4.0(5.7)	4.8(6.8)	5.6(7.9)	5.3(7.6)
일 본	3.0(2.0)	4.7(3.2)	5.0(3.4)	5.8(3.9)	6.0(4.0)
독 일	7.6(3.0)	7.5(3.1)	7.4(3.1)	7.8(3.3)	7.6(3.2)
영 국	7.7(2.2)	5.5(1.6)	5.1(1.5)	5.3(1.6)	5.3(1.6)
프랑스	10.9(2.8)	9.4(2.5)	8.7(2.3)	9.2(2.5)	9.0(2.5)
EU	9.2(15.4)	7.8(13.8)	7.4(13.0)	7.6(13.5)	7.5(13.4)
OECD	6.8(32.9)	6.1(31.4)	6.4(32.9)	6.9(35.6)	6.7(34.9)

\* 전망치

차이)는 2000년 31.8%p로 OECD평균 18.6%p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여성의 취업률은 OECD평균(69%)보다 낮은 56.3%에 불과하다. 다른 회원국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으나, 우리나라는 거꾸로 대졸여성 취업률이 OECD회원국(평균 82.1%) 가운데 가장 낮은 55.0%로 나타났다.

다. 제3장, 임시고용 실태 비교분석 (taking the measure of temporary employment)

지난 20년 동안 많은 OECD국가에서 임시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고용불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OECD 국가들의 통계 비교분석 결과 임시고용의 점유율 변화는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몇몇 유럽국가들(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그리스, 룩셈부르크는 감소) 하나의 공통된 양상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한국과 미국은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임시직 비율(17%)은 스페인(약32%), 멕시코(약21%), 포르투갈(약21%), 터키(약20%), 핀란드(약18%)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라. 제4장, 장기실업 진입과 탈출(the ins and outs of long-term unemployment)

2000년 현재 OECD 회원국의 장기실업률(1년 이상)은 평균 30%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50% 이상 :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독일, 20% 미만 :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캐나다, 미

국, 노르웨이, 한국, 멕시코). 특히 “실망실업자”를 고려한 “장기무직자”의 비율은 장기실업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2000년 EU평균, 25-54세 남성, 장기실업자 5.6%, 장기무직자 12.9%)이다. 실업자 프로파일링을 통해 「장기실업으로 전환 위험이 높은 단기실업자 지원」과 「근로의무와 지원을 연계하는 개인별 취업지원」이 정책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실업과 노동시장프로그램 참여를 반복하는 경우, 실업진입과 탈출이 반복되는 “회전목마 효과(Carrousel Effect)”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실업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3. 근로시간제도 관련 주요 통계

가.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person in employment)

2001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통계비교가 가능한 2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2,447시간을 일했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2,000시간을 넘는 국가는 체코(2,000시간)와 슬로바키아(2,026시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시간제 고용(part-time employment)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제 고용 비율은 7.5%(남성 5.2%, 여성 9.9%)로서, '90년이래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나('90년 4.5% → '97년 6.8% → '98년 7.8% → '99년 7.1%), OECD평균(14.9%)

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1.9%), 헝가리(2.8%), 체코(3.2%), 그리스(4.8%)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33.0%)이며, 호주(27.2%), 일본(24.9%), 스위스(24.8%), 영국('99년 23.0%), 뉴질랜드(22.7%), 노르웨이(20.1%) 등도 높

은 수준을 보였다. 10%대 국가로는 아일랜드(18.4%), 캐나다(18.1%), 스웨덴(17.8%), 미국(13.0%) 등이 대표적이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58.4%로 OECD평균(68.9%) 및 EU평균(76.7%)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sup>KR10ET</sup>

〈표2〉 1인당 연간 실 근로시간

(단위 : 시간)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아일랜드	이태리
'90년 <sup>1</sup>	1,866	1,679	1,788	2,067	1,492	1,763	1,657	1,560	1,912	1,839	1,922	1,674
'01년 <sup>2</sup>	1,837	1,528	1,785	2,000	1,482	1,694	1,532	1,467	1,921	1,847	1,674	1,606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90년 <sup>1</sup>	2,031	<b>2,514</b>	1,927	1,454	1,820	1,432	2,055	1,813	1,549	1,589	1,767	1,838
'01년 <sup>2</sup>	1,821	<b>2,447</b>	1,863	1,346	1,817	1,364	2,026	1,816	1,603	1,568	1,711	1,821

주: 1) 체코, 멕시코,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는 1997년 자료.

2) 캐나다는 1999년, 일본, 스위스는 2000년 자료.